



제4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성료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 심도 있는 논의



▲ 제4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기념 촬영

불교충지중이 주관한 제4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 문화관광부 후원)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서울과 충남 공주 한국전통문화원 등에서 개최됐다.

대회 첫날인 9월 30일에는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름 환영만찬, 충지사 참배 행사가 마련됐으며, 10월 1일 오전에는 '새로

운 세대를 위한 불교'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각국 참가자들이 의견발표를 했다. 또 1일 오후부터는 공주 마곡사로 이동 한국전통문화원에서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생활불교 관련 실천방안 논의, 각국 대표의 재가불교활동에 대한 소개시간이 있었다.

이와함께 공주 마곡사, 예산 수덕사, 대구 동화사 참배, 백제 문화대전 관람 등 한국문화 흥

보 프로그램이 차례로 열렸다.

효강 종령예하는 대회 첫날 환영사에서 "우리 충지중은 한국 불교의 대표적 재가종단으로서 모든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생활 가운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았다"며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불법이 실천된다면 생활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령예하는 이와함께 "충지중은 생활가운데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하여 세계의 모든 재가불자들과 생활불교 실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대회를 통하여 불자 여러분의 우의가 돈독해지고 좋은 의견이 불교 발전에 반영되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을 함께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대회 조직위원회 회장 정사는 인사말에서 "불교는 교단준론을 논하는 관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되어 우리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 관념적인 불교를 배제하고 생활 가운데서 불법이 효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불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독일, 중국, 대만 등 세계 10여개국 약 30여명의 재가 불교지도자 및 재가불교운동 관련 학자와 승려들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10, 12면)

1차 정책토론회 만보사서 개최

“종단운영 중장기 청사진 마련”



▲ 만보사에서 열린 1차 정책토론회

종단발전과 교화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승단 정책토론회가 9월 28일 12시 대전 만보사 1층 대강당에서 불사법요(佛事法要)와 의식(儀式)을 주제로 열렸다.

충지중 전국 각 교구의 승직자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효강 종령 예하는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승직자의 자세가 바르지 않고서는 교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화를 위해선 승직자의 회생정신과 보시하고 애어, 이행, 동사하는 사설법의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화령 정사는 "종단의 의식이 너무 간소화 돼서 장중함이 떨어지는 점이 없지 않다"며 "종단 의식의 패러다임을 변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법경 정사는 "49세 막재와 같은 경우엔 보다 장중한 의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선 용도에 따른 다양한 불사의례 개발을 비롯해 기존 불사법요집 개선, 전국

각 사원의 각종 불공법과 교화방편에 대한 설문조사, 범의의식 집공과 독송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교류했다. 승단 정책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 분야별로 구체적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종단운영의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책토론회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한 종단발전 방안과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정책 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 일선사원 교화 사례 방편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창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종립 동해中 43주년 개교기념식 거행

16,000여 졸업생, 각계 주도적 역할



▲ 해오름관에서 거행된 개교 43주년 기념식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가 9월 20일 오전 11시 해오름관에서 제 43주년 개교기념식을 거행했다.

충지중 지성 총리원장은 축사에서 "재학생들은 선배님의 훌륭한 모습들을 거울삼아 학생으로서 해야 할 임무를 다해야 한다"며 "언제나 남을 돕고 베푸는 데서 만족을 구하며, 참된 진리를 깨우쳐 나가는 기쁨을 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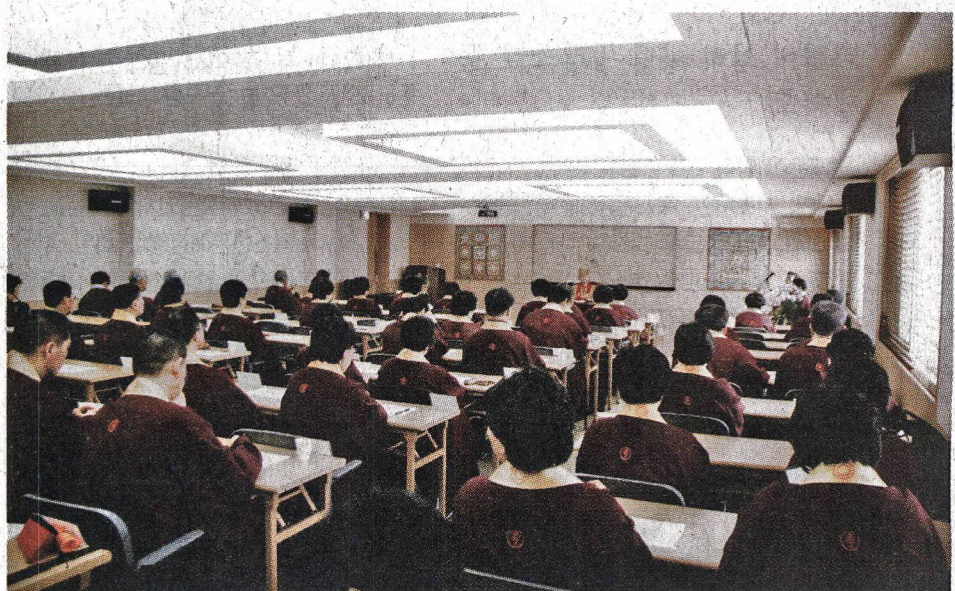
비롯하여 전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각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어 우리학교는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동해중 김현우 이사장은 축사에서 "우리 학교는 종립학교로

는 동해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성 총리원장은 이와 함께 "교장 선생님을

장계 교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과 희망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투자하는 현재의 노력이야말로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갈 때 방향을 가르쳐 줄 나침반"이라며 "가야할 목표와 미래의 희망을 갖고 거기에 걸맞은 알찬 실력을 쌓아간다면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지중, 제76회 추계강공회 개최



▲ 제76회 강공회 장면

불교충지중(총리원장 지성)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제 76회 추계강공회를 개최한다.

이번 추계강공회는 26일 오후 3시 개강식을 필두로 승단 총회 등을 개최하여 전년도 결산 건 심의와 결의, 각 기구 임원 선출과 중

단헌안문제 등을 논의한다.

한편 12일 열린 원의회, 재단 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예산 및 추가경정 심의를 비롯해 축막 연장 근무 심의, 기타 안건, 등의 논의가 있었으며 복지재단 회의에선 예산 및 추가경정 심의와 함께 임원선출, 교도 복지 재단 기금 지원의 건, 등의 토의가 열렸다.

이와함께 13일 열린 중앙종의 회에선 예산 및 추가경정 심의를 비롯해 종단 산하 각 기구 임원 추천 건, 등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충지중은 이번 추계강공회와 사전 회의, 등에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종단운영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 종단중흥의 시급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76회 추계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 방안을 논의 하고자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수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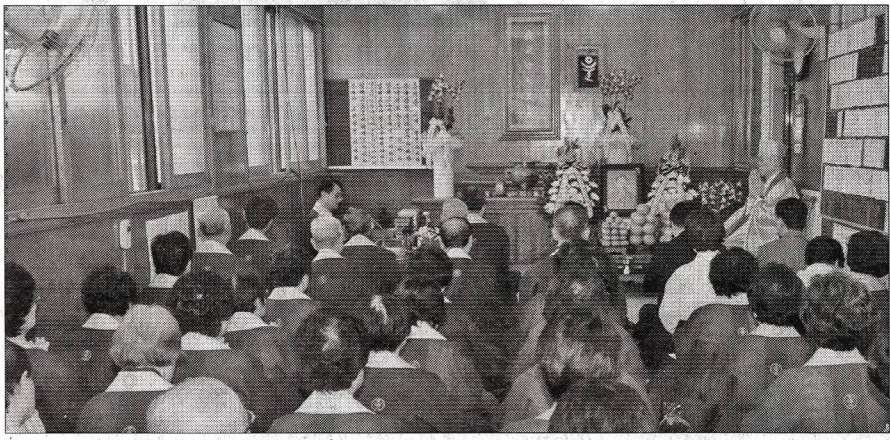
- 일시 : 충기39년 10월 26일(화)~10월 28일(목)
- 장소 : STX리조트(경북 문경)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충지중 총리원장



해산 기로스승 열반 1주기 추선불사



해산 기로스승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9월 27일 경주 수계사에서 봉행되었다. 총무부장 인선 정사의 집공으로 진행된 이날 불사는 효강 종령 예하와 전국 각 사원의 스승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비로자나불전 호념, 추선사, 유가삼밀, 실시정진, 추복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해中 동문회, 통리원 방문



▶ 동해중 동문회 인사 일행이 지난 10월 1일 재가대회 참석 후, 역삼동 통리원을 방문해 지성 통리원장과 인선 총무부장과 환담을 가졌다.

동해中 김문수 교장 퇴임식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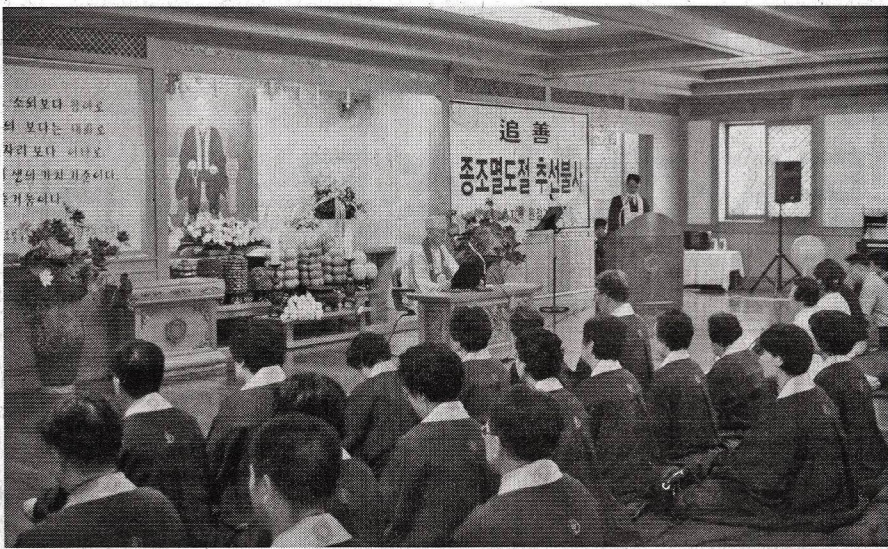
▲ 김문수 교장이 학생회장으로부터 퇴임식 꽃다발을 받고 있다.

종립 동해중학교 김문수 교장 퇴임식이 8월 30일 거행됐다. 김문수 교장은 퇴임사에서 "교육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또 "저는 이제 학교를 떠나지만, 이후에도 변함없이 동해 학교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베풀어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창종 초기 대신심, 추진력으로 종단 중흥"

30주기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총지종 창종조 원정 대성사 열반 30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9월 8일 오후 2시 서울 총지사 원정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봉행됐다.

효강 종령예하는 "우리 종도들은 창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말법시대의 무명을 밝히는 보살이 되어야 한다"며 "창종 초창기의 대신심과 추진력으로 종단 중흥을 위해 전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오늘 멸도절을 맞아 말법홍포의 대원을 부족하신 종조님의 큰 뜻을 되새겨야 한다"며 "종조님의 가호로 교도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원정 대성사 열반 30주기 멸도절 추선불사는 헌화 및 훈향정공, 추선사, 종조 육성법문, 창교가 제창, 종조전 참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통밀교종단 총지종을 창종한 원정 대성사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

'sbs스페셜', 실지사 교도 박병성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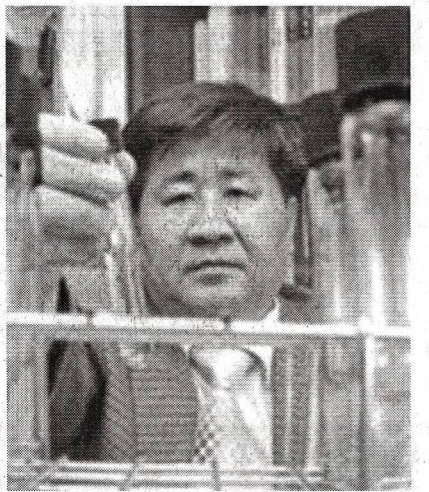
오메가쓰리 한우 연구 방영

총지종 실지사 교도인 강원대 동물생명과학대학 박병성 교수가 'sbs스페셜'에 국내전문가로 출연해 오메가쓰리 한우 관련 연구 성과를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10일 방영된 'sbs스페셜 옥수수의 습격' 편에서 늘푸름 흥천한우사업단과 공동 개발한 오메가쓰리 지방 강화 한우고기가 혈액 콜레스테롤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사실을 그간의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sbs스페셜은 방송에서 목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풀 없이 오메가3 지방산의 균형이 맞추어진 소고기와 달걀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소개하며 박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집중 방영했다.

sbs스페셜 방송 내용은 옥수수를 처음 작물화하여 주식으로 삼았던 고대 멕시코인은 옥수수가 오메가-6 지방산을 이기는 지혜를 갖고 있었고 옥수수와 함께 치아라는 식물의 씨앗을 함께 먹었다는 것, 그리고 치아는 지구상의 식물중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가장 높다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해 sbs스페셜 취재진과 강원대학교 박병성 교수 연구팀이 한국에도 치아에 해당하는 식물이



박병성 교수

있음을 확인했다.

sbs스페셜은 박 교수와 연구팀의 연구 활동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촬영했고 이를 통해 오메가쓰리 지방이 강화된 한우고기가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수입 소고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한편 박 교수는 2007년 9월 집파리 유충을 이용해 가축사료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신물질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정각사 연가

무궁화 마디마다 속살이 드러나고
자성일 회향소리
열반송 후렴구는
서원당 옥바라미에 입 맞추자
보낸다.

순매 물은 염주 알은 인연을
구걸하고
정각사* 육연불은
천수경과 춤을 춘다
억겁의 풍경소리가 슬바꼭질
하잔다.

바람에 실려 가던 풍경소리 동행하고



탁상달

저우내 망을 보던
동백꽃도 하품하니
새벽도 힘에 겨운지 함께 졸다
잠든다.

*정각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 2동 8-8번지에 있는 총지종 사찰

“지은이 약력
시인, 시조시인, 독서운동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모니터 요원교사, 부산문인협회 이사, 부산불교문인협회 이사, 부산시조시인협회 이사, 청소년문예진흥회 회원, 부산불교연합회 지도교사, 부산교사불자회 회원, 책임부산사람들모임 회장, 전국독서새물결모임 지문위원, 한국도서관협회 부산협의회 이사, 시조사랑 동인, 새미시 동인, 전국시조백일장 장원, 전국독서지도교사 대상, 현재 동해중학교 국어교사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9/20 10,000	기로원 불멸심 9/17 10,000	밀인사 이연수 9/26 10,000	실보사 신해숙 9/16 10,000	해정사 정은선 9/8 20,000
개천사 전경택 9/24 20,000	기로원 사홍화 9/17 10,000	밀인사 김덕배 9/27 20,000	실보사 해 정 9/28 10,000	화음사 강순란 9/3 5,000
개천사 이희원 9/28 10,000	기로원 상지화 9/17 10,000	밀인사 정정희 9/29 5,000	실보사 정법계 9/28 10,000	이숙남 9/12 30,000
관성사 정정희 9/2 10,000	기로원 수중원 9/17 10,000	백월사 박현자 9/20 10,000	실보사 이순옥 9/30 5,000	진평 9/15 5,000
관성사 황성미 9/27 10,000	기로원 총지화 9/17 10,000	법천사 김정숙 9/1 5,000	실지사 이화수 9/24 10,000	구정희 9/16 20,000
관성사 박현숙 9/29 10,000	단음사 천 공 9/6 4,000	법천사 시 정 9/17 10,000	실지사 정경자 9/28 5,000	정우석 9/17 10,000
국광사 최운정 9/30 10,000	단음사 법연지 9/20 5,000	법천사 원만원 9/17 10,000	운천사 이태남 9/1 20,000	박말조 9/17 5,000
국광사 이상월 9/30 10,000	단음사 경문지 9/28 10,000	법천사 김정숙 9/30 5,000	운천사 박보경 9/30 20,000	임동수 9/20 30,000
국광사 박주열 9/30 10,000	단음사 경명준 9/28 10,000	법황사 강길자 9/28 20,000	정각사 김문수 9/20 10,000	이갑진 9/27 10,000
국광사 안 성 9/30 10,000	덕화사 하순옥 9/15 5,000	벽룡사 양지현 9/17 10,000	지인사 허성동 9/16 20,000	안효정 9/27 20,000
기로원 대 관 9/17 10,000	만보사 정덕순 9/30 10,000	벽룡사 양정현 9/17 10,000	총지사 선도원 9/16 10,000	이혜원 9/30 5,000
기로원 대자행 9/17 10,000	밀인사 이재호 9/2 20,000	선립사 정복지 9/27 10,000	총지사 록 경 9/16 10,000	최순전 9/30 20,000
기로원 밀공정 9/17 10,000	밀인사 이희원 9/3 10,000	선립사 심지장 9/27 10,000	총지사 최해선 9/20 20,000	
기로원 법수원 9/17 10,000	밀인사 묘심해 9/10 10,000	수인사 장영택 9/1 50,000	총지사 이수영(이옥준) 9/29 20,000	
기로원 법장화 9/17 10,000	밀인사 원당 9/10 10,000	수인사 김봉기 9/29 10,000	해정사 지성인 9/8 20,000	
기로원 법지원 9/17 10,000	밀인사 이혜성 9/15 20,000	실보사 조순애 9/2 5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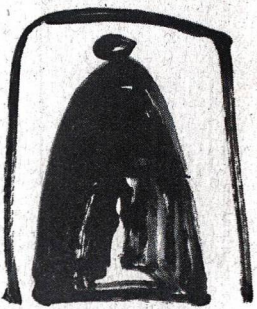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풍경소리

호박 넝쿨



묘원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아름다운 얼굴



담 위에 가을별이 환하다.
누런 호박 두 덩이가 목직하게 매달려 있다.
의젓하다.
“저 놈들을 저리 기르느라
호박 넝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호박 넝쿨은 가늘지만 억세다.
소 팔고 논 팔아 자식을 대학 공부시키던
시골 농부의 손처럼 억세다.
매한 호박알이 중간에 시들까 봐
애는 또 얼마나 태웠을까?
역센 손, 새카맣게 탄 속.

의젓한 호박들이여,
오늘 퇴근 때는 부모님 자식 술 한 병,
고기 한 근 사 가지고 들어가게나.
모시고 사는 것 괴롭게 생각 지 말게.
사 가지고 들어가 봐야 소용없는 사람도 있
다네.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정진권 / 한국체대 명예교수

깨진 종처럼

상대가 자신을 비난할 때 그가 말한 비난은
그의 행위이므로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님니
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뻐 보이고 싶어 합니다.
얼굴을 성형하거나 화장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겠지요.
그런데 같은 얼굴이라도 어느 편 예뻐 보이고
어느 편 미워 보일때가 있습니다.
보는 이가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거나 보여
지는 이가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충만해 있다면
아무리 못 생긴 사람이라도 그렇게 화사해 보
일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대는 아름다움을 얼굴의 성형이나 화장에
서 찾으시렵니까
아니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만드는데서 찾으
시렵니까?

은산 스님(정업도량 회주)



내용참조: “불교총전” 교법편 46p-1

이달의 명상

안인(安忍)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 나를 꾸짖고 욕했다.
그러나 내가 잠자코 대꾸하지 않았더니 그는 꾸짖기를 그쳤다.
내가 그에게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 했을 때 그가 받지 않는다면 당신
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그냥 가지고 돌아가지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에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당신 자신에게 한 것이요. (사십이장경 四十二章經)’

부산 경남 교구 만다라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충지종 부산 경남 교구 만다라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 시
- ◆ 연습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 연습장소 : 정각사 합창단실
- ◆ 연 락 처 : 김 윤 경 단 장
051)552-7901





총기화 스승님 달라이라마 친견기<1>

“마음은 본래 청정, 밀교와 상통”

총기화 기로스승님이 지난 9월 15일~17일까지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에서 열린 달라이라마의 한국인 불자들을 위한 특별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약 3,500여명의 내외국인 불자들이 동참한 법회에서 달라이라마는 처음 참석한 대다수의 불자들을 위해 대승의 보리심을 발하는 응수보살의 저술 <보리심식>을 설했습니다. 법문 요지를 게재합니다.

부처님 초전법륜(初轉法輪)의 해설서인 응수보살의 저서 <보리심식>은 본래 인간의 마음은 청정하며 밀교와 상통하는 것으로서 인간 마음의 허물을 없애는 것을 관건으로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미세한 의식 상태를 현현시키는 것이 밀교의 수행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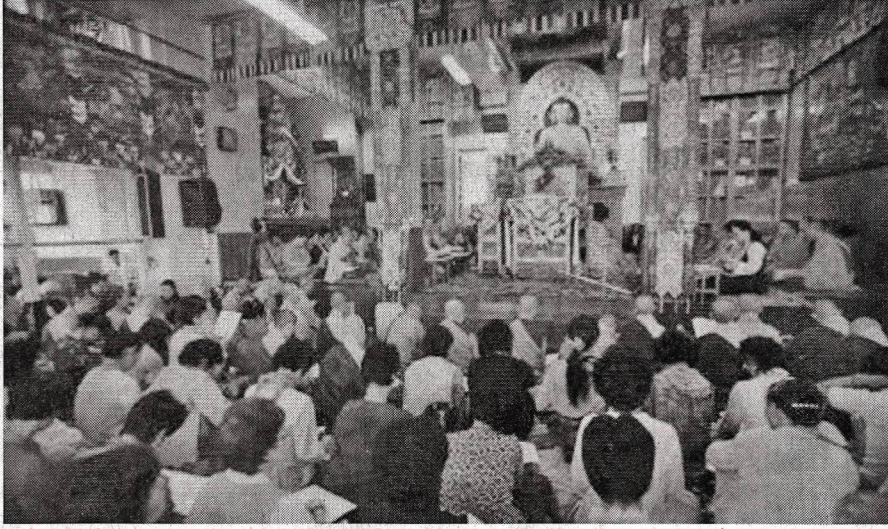
우리가 어떤 법을 설하고 듣는데 있어서 근기(根機)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법자와 법을 듣는 이 모두 절실한 심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불법을 유지하고 받들겠다는 마음으로 법을 설하고 제자 역시 신심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멸성제(滅聖諦) 즉, 번뇌의 허물에서 벗어난 열반을 이루기 위해 불교 수행을 합니다. 비폭력으로 선취에 들 수 있지만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만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명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하며 일어나는 지혜에는 사해(思解)에 의해 일어나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그 이전에는 문해(聞解)가 일어나야 합니다. 수습해서 일어나는 지혜를 수해(修解)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성(空性)을 사유함에 있어서

확신을 스스로 이끄기 위함입니다. 많이 듣고 공부하는 문(聞)을 시작으로 사수(思修)의 과정은 반드시 인과의 관계로 성립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이 자리에서 법을 듣기 위해 모인 동기를 바로 세우십시오.

모든 고통의 근본은 번뇌이고 그로 인해 아집(我執)이 생깁니다. 나만 소중한다는 이기심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꿈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면 우리는 아견의 반대되는 생각인 무아(無我)와 아집의 반대된 생각인 보리심(菩提心)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룬 것이 응수 보살의 <보리심식>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무아의 지혜를 증장시키고 이타심을 키워 나간다면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지속적인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행복은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보리심식>은 무아의 지혜를 이야기



▲ 한국인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 특별법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에서는 인무아를 향유하는 존재자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점차적으로 수행하면 '아'의 집착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식학과 중관에 있어 인무아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법무아(法無我)입니다. 아의 집착을 없앨 때는 인무아이지만 반대

(空)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승의보리심(勝義菩提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지해서 공을 이름붙인 것뿐이지 공 또한 실재하지 않습니다. 보리라는 말은 '희롱의 적멸'을 의미합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허물이 벗겨져 본래가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집착하는 의식 또한 적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리(菩提)란 성품이 없고 생함이 없으며 존재한 적이 없어 허공과 같습니다. 공성을 깨달은 승의 보리심은 분별로는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음의 정수에 머무시는 부처님은 언제나 공이 허공과 닮았음을 아십니다. 붓다는 말 속에도 '청정하다', '그치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착의 근거가 모두 적멸한 상태입니다.

희롱의 적멸이 바로 공성(空性)입니다. 이런 공성을 깨달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식음과 대치합니다. 반야경에서 '제법이 무자성'이라는 공극의 실상을 말씀합니다. 선(善), 불선(不善)이란 분별의 흐름을 깨 것이 공입니다. 마음에 의식의 대상이 없는 머무름은 허공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집착하는 것은 모두 배제되어야 합니다. 공의 사자후에 모든 실유론자(實有論者)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타력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부 조건에 의해 결과물이 발생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초전법륜 이후 부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체중지를 이루고, 이를 위해 승의보리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자성은 제법의 법성입니다. 사탕의 달콤함과 불의 본성인 뜨거움과 같이 모든 법의 본성을 공으로 인정합니다. (다음에 계속)

대승 보리심 발하는 보리심식 무명 없애는 방편이 수행

합니다. 부처님의 경장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오온(五蘊: 생멸 변화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 즉, 色受想行識)에 의지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무아(人無我)입니다. 경량부에서 이야기하는 인무아는 몸과 마음을 좌지우지 하는 주체로서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아(我)'가

로 향유하는 주체 대상이 아직 남아 있음으로 법아의 집착은 끊어집니다. 물론 인무아를 수행했을 때 법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인식하는 대상과 주체는 상호 의존적으로 안립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성(自性)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은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름과 달리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언어 또한 무자성(無自性)인 것입니다.

마음은 환(幻: 환상)의 본성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眼識)은 안근(眼根)과 대상 경계가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실체인양 느껴지지만 실상은 이것이라고 규명하려 할 때 결코 실체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롯한 모든 제법은 상호의존에 의해 존재하니 본래 자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체의 희론이 적멸한 무분별의 지혜가 생기기 이전에는 대상이 마치 진실인양 여겨집니다.

어떤 이에게 분별이 일어난다면 공



▲총기화 기로스승

총기동의보감

중년여성의 고질 '화병'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그야말로 하늘이 높고 맑아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가을입니다.

이런 푸르른 가을 화창한 어느 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담한 체구의 젊은 여성이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밝고 활기차 보여야 할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하고 질은 수심이 가득한 그녀의 얼굴은 누가 보아도 중증의 병자처럼 보였습니다. 다양한 한방검사와 전

문적인 상담결과 그녀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대표적 증상인 '화병'

이러한 제반 증상들은 기의 역순환에 의해서 인체의 화, 열 기운이 위로 상승하면서 전신의 기관에 영향을 주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가부장적 사회 제도로 인해서 남성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의 절제를 극도로 요구당하고 회생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던 50~60대 중년여성들에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후 육아부담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20~30대 전업 주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이후에는 중년남성들도 강제퇴출, 사업실패, 경제적 빈곤, 이혼 등으로 화병에 걸려 심적고통을 당하거나 심하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청년실업으로 인해서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화병증상을 갖고 고생하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외부적 스트레스 상황에

아! 답답한 가슴을 뽕 뚫어주세요...

중년여성의 고질 "화병"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남편과 시댁가족 문제가 원인이 되어 오랜 기간 동안 억압 받고 살던 40~50대의 중년여성들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진 이 질환은 정확히 말하면 의학적 질환은 아니지만 한국특유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서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이 표출되지 못하고 마음에 화나 열이 쌓여서 가슴답답함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분노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장기간 화,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발생하는 열이 위로 올라가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서 '울화병'이라고도 합니다.

화병의 원인으로는 우울증, 억울한 마음, 갱년기, 불안성 신경증, 내·외부적 스트레스 등이 작용하고 증상으로는 불면증, 두통, 피로감, 우울증, 불안함, 가슴답답함, 수족냉증, 생리불순, 과다월경, 소화불량, 식욕부진, 호흡곤란, 전신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꼭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완벽주의자, 고집이 센 사람, 예민한 사람 등이 외부의 스트레스 상황을 더 힘들어 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병은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의 탈출구가 적고, 사회적 행동의 제약을 받는 여성들의 전유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화병의 치료법은 울체된 심장과 폐의 열을 풀어주고 심장과 자궁의 기 순환을 원활히 유지시키고 보완해주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지만, 근본적으로 화병을 어떻게 풀 어낼지를 찾는 것이 현명하고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즐거움 마음으로 각자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활동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어린 대화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쌓여 있는 응어리를 해결해 나간다면 더 없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 상담문의 02)545-0072

밀교연구소 범경 청사와 함께 떠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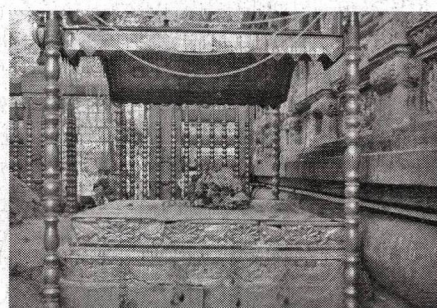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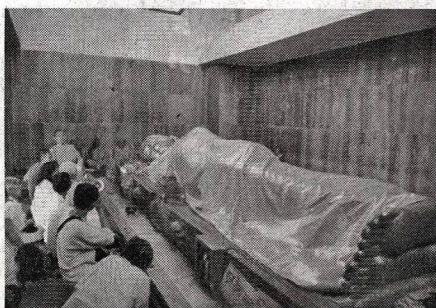
“네팔 · 인도 불교성지순례 및 문화탐방”

-네팔 · 인도 성지순례를 떠날 불제자들을 모집합니다-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 등 불교의 4대 성지가 있는 『네팔과 인도』!!!

불교성지순례와 함께 히말라야 등 세계자연문화유산지로 떠나는 불교문화탐방을 통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관광차원의 성지순례가 아니라 네팔불교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떠나는 성지순례와 문화탐방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11박12일 일정(네팔/인도) 및 비용 : 2011. 1. 17(월) - 1.28(금) (약 250~280만원)

(·최소인원 미달과 항공권 부족으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출발인원 : 16명 ·비용은 일정변경 및 항공료 인상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설법

육바라밀 실천과 생활화



법공

기로스승

좋은결과 되는육행 단시불공 정계불공 안인불공 정진불공 정려불공 지혜불공 이육행을 실천하여 저안락에 이르른다

세간사람 누구라도 간탐하는 마음있고 악독스런 마음있고 성을내는 마음있고 게으른 마음있고 어지러운 마음있고 어리석은 마음있고 계박되고 전도되니

단시로써 도탐하고 인색함을 다스리고 정계로써 추잡하고 악마행동 다스리고 안인으로 성을내고 원수짐을 다스리고 정진으로 게으르고 방일함을 다스리고 정려로써 어지러운 허망번뇌 다스리고 지혜로써 어리석고 미련함을 다스리면 모든고통 물러가고 구경해탈 되느니라

-중조법설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수행요체는 뉘니뉘니해도 역시 육바라밀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교를 표방하는 우리 총지종의 수행요점 또한 소의경전의 하나인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에 의한 육바라밀 실천과 생활화에 있다 하였습니다.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권 4 <중생을 제도

하고 육바라밀을 수행해야 무상보리를 증득함을 실행>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박가법께서 자씨보살마하살에 말씀 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은 마방히 오취(五趣)의 중생을 인도하여 무상정등보리에 들지니라. 외도의 삿된 법과 악지식을 원리하고 마방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친근하여 수행할 것이며, 구족하게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반려로 삼고 자신에 있어서도 정법을 듣고 부지런히 외위 지닐지니라. 항상 이와 같이 여섯가지 바라밀다에 안주하여 정진 수행하고 마음과 뜻을 행복 받아서 육근을 섭호(攝護)할 지니라. 이 세력으로 말미암아 속히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느니라>

이상과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육바라밀을 수행해야 무상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했습니다. 바라밀이란 다 아시다시피 '도피안(到彼岸)' 즉 저 언덕에 도달한다는 말로 고통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저 언덕이란 만족과 안락이 보장된 우리 모든 중생들의 영원한 이상향입니다.

열반을 자칭 '죽음' 또는 죽은 뒤에 가는

극락세계 쯤으로만 생각하는 이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반의 뜻은 깊고 넓어서 언설로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전이나 사후 어느 한 쪽에만 국한됨이 없이 넓고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불만과 고통을 '이 언덕'이라고 한다면 만족과 안락은 '저 언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서원을 '이 언덕'이라하면 성취는 '저 언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총지종에서는 육바라밀을 교리적인 이론보다 실천행에 무게를 두어 주로 육행(六行) 또는 육행실천 등으로 즐겨 씁니다. 그럼 육행실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바라밀 입니다.

<육행지중에 행단이 위수(六行之中에 行檀이 爲首)>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을 맨 먼저 행해야 할 순서로 보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이 처음 보시 바라밀로 부터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순으로 차례를 뒀던 것도 깊은 뜻이 담겨진 순서라 하였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중생의 탈을 벗지 못함도 따지고 보면 무시광검으로부터 지어 모은 탐

진치 삼독업 때문입니다. 삼독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중생탈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독업 중에서 탐업이 그 머리가 되는 것이니 먼저 탐심부터 소멸시켜야 함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탐업을 녹이는 데는 보시행이 최상의 약양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행에도 세 종류가 있으니 소위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가 그것입니다. 이 삼중시를 또 행할 순서대로 말한다면 재시가 먼저입니다. 재물이란 인생살이에서 매우 소중한 것으로 재화를 우리 몸에 비한다면 피와 살과 같아서 부족하거나 없게 되면 당사 생명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다생겁으로 물질에 집착과 탐욕을 자꾸 쌓아서 탐업이 가장 무거운 중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탐심 때문에 온갖 죄업을 짓게 되고 또한 선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풀어 널리 보시행을 함으로써 속세의 탐업을 녹이고 아울러 큰 복업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지종의 교도들은 입교와 동시에 먼저 쉽고 가까운 단시행(檀施行)부터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 대인 관계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육방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동쪽은 부모요, 남쪽은 스승이며, 서쪽은 아내요, 북쪽은 친족이며, 아래쪽은 종이고, 위쪽은 덕이 높은 사문과 바라문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음 같은 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부모를 잘 받들어 아쉬움이 없게 하고,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알리며, 부모가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고 부모의 '당부를' 어기지 않으며, 부모가 경영하는 바론 '자업을' 계승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받들어 효도로 섬기면 부모는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또 부모는 다음과 같이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자식을 타일러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일은 가르쳐 주며, 사랑이 그 골수에 사무치도록 하고 좋은 곳에 결혼시키며, 수시로 필요한 물건을 대어주어야 한다.

제자가 스승을 받들어 공경하는 데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 필요한 물건을 대어 드리고 예배 공양하며 존경하여 우러러 받들고, 가르침이 있을 때는 순종하여 어기지 않으며 들은 법은 잘 지녀 잊지 않아야 한다.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받들면 스승은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또 스승은 다음 같은 일로 제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법을 따라 다루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며, 묻는 것에 대답하여 잘 이해하도록 하고, 좋은 법을 알선했다 주며 아는 것은 아끼지 않고, 모두 가르쳐 주어야 한다.

남편이 아내를 위한 데에도 다음 같은 일이 있다. 예절로써 대하고 위신은 지키며, 항상 의복과 음식을 넉넉히 대어 주고 집안 일을 믿고 맡겨야 한다.

또 아내는 다음 일로 남편을 공경하여야 한다. 항상 먼저 일어나고 뒤에 앉으며,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잘 순종하며, 남편의 뜻을 먼저 알아 받들어 행해야 한다. 아내가 이와 같이 남편을 받들어 공경하면 남편은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음 같은 일로 친족을 가까이하고 공경하여야 한다. 물건을 나누어 쓰고 말을 인자하게 하며, 이익을 주고 이익을 같이하여 속이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친족을 공경하고 가까이하면 친족은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주인은 고용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가르쳐야 한다. 능력에 따라 일을 시키고, 항상 음식을 대어 주며,

진리의 여울

수시로 노력의 대가를 치러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 주며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 고용인은 다음 같은 일로 주인을 받들어 섬겨야 한다. 일찍 일어나고 일을 정성껏 해야 하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순서대로 일을 하며, 주인의 이름을 칭송하여 드날리는 것이다. 고용인이 이와 같이 주인을 섬기면 주인은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시주는 항상 다음 같은 일로 사문이나 바라문을 받들어 공경해야 한다. 행동이 친절하고 말이 인자하며, 마음이 지비스럽고 때를 맞추어 보시하고 문을 잠그지 않는다. 시주가 이와 같이 사문이나 바라문을 받들면 그들은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또 사문이나 바라문은 다음 같은 일로 시주를 가르쳐야 한다. 그들을 보호하여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며, 이미 들은 것은 잘 이해하게 하고, 천

상에 나는 길을 알려 주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장자의 아들 싱갈라는 이렇게 여쭙었다.

"부처님, 부처님의 말씀은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훈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고,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시며, 미혹한 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시고 눈 있는 사람은 보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수한 방편으로 미혹한 자를 깨닫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이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승단에 귀의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 바른 법안에서 신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목숨을 마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六方禮經>

◇ 허공에 침벨기

"악한 사람이 선한 일 하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와 귀찮게 굴더라도 스스로 참고 견디면서 그에게 성내거나 꾸짖지 마라. 남을 미워하는 자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베푸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 나를 꾸짖고 욕했다. 그러나 내가 잠자코 대꾸하지 않았더니 그는 꾸짖기를 그쳤다. 내가 그에게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 했을 때 그가 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그냥 가지고 돌아가지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에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당신 자신에게 한 것이요. 마치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고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는 것과 같이, 당신은 당신이 범한 죄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 부디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치는 것은 허공을 향해 침을 뱉는 일과 같다. 침은 허공에 머물지 않고 자기 얼굴에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뿌리는 일과 같다. 티끌은 저쪽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몸에 와 묻을 것이다. 어진 사람을 해칠 수는 없는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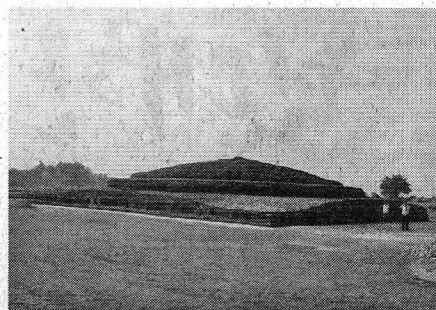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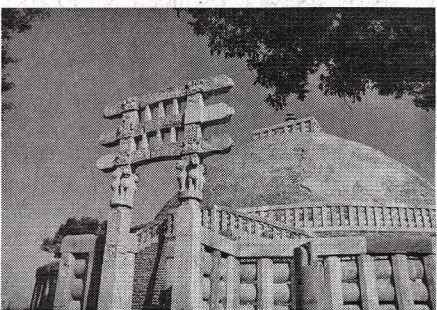
회는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만다."

<사십이장경 四十二章經>

◇ 큰 공덕

"많이 듣는 '것으로써' 도를 사랑한다면 도는 끝내 얻기 어려울 것이다. 뜻을 지켜 도를 받들어 행할 때에야 그 도는 크게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이 도를 펴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한다면 그 공덕은 아주 클 것이다. 어떤 사문이 내게 물었다. '그러면 그 공덕은 다 할 때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한 횃불에 수천 사람이 저마다 횃불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 간다 할지라도 그 횃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공덕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악한 사람 백 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명의 착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더 낫고, 착한 사람 천 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명의 오계(五戒) 지키는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이와 같이 백 억의 아라한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 낫고, 천 억의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보다 분별 없고 집착 없고 닻을 짓 없고 증득할 것 없는 사람 하나를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사십이장경 四十二章經>



■ 문의/예약처 : 순례에 동참하실 분들은 아래로 문의,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 단 : 불교 총지종 밀교연구소 (☎ 02-552-1080~3)

(법경 정사 : 011-419-0378)

- 여행사 : 네팔전문여행사 (주)한네인 투어 (☎ 02-418-5252)

(윤준민 대리 : 010-4110-9837)

■ 예약신청기간 : 2010년 9월 1일(수) ~ 10월 29일(금)

■ 선착순 예약 :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십시오. (선착순 모집 : 최소인원 16명)

■ 계약금 입금/원불 : 계약금은 예약시 50만원 납입, 잔금은 출발 30일전 입금 (계약시 여권상의 영문이름, 성별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확보 차원)

■ 입금계좌 : 농협 100145 - 55 - 001693 (주)한네인투어

■ 환 불 : 예약취소 등으로 인한 요금 환불은 '한국관광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 환불기준에 따릅니다.

■ 여행일정 연기 및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순례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천재지변과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경우

◎ 현지 치안상황 등 여행지의 안전상의 경우

◎ 2회에 걸쳐 최저출발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단, 최저출발인원 미만시는 개인부담 요금에 증가됨)

■ 요금변동 : 환율, 국제유가, 세금, 출발인원수 변동으로 인한 항공료, 현지체류비 등에 요금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별도 선택관광과 1인 싱글룸 별도 이용시는 본인 부담입니다)

■ 여권 및 비자 : 여권 및 비자 발급비용은 별도이며, 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팔 비자 : 37,000원 / 인도 비자 : 82,000원 / 합계 : 119,000원)

■ 세부일정 : 세부일정은 희망하시는 분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현지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불교 4대 성지 : 룸비니 동산(부처님 탄생지), 붓다가야(부처님 성도지), 바라나시 녹야원(부처님 초전법륜지), 쿠시나가라(부처님 열반지)

세상사는 이야기

가을을 맞이하며

날마다 찌푸린 얼굴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비를 뿌리던 하늘이 모처럼 환하게 웃고 있다. 밝은 햇살이 온 세상을 골고루 비춰 주어서 나무와 풀들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고 있다. 내 가슴에도 늘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 몸과 마음이 천근처럼 무거웠는데 오늘 드디어 밝은 햇살을 받아 날아 갈 듯 가벼워졌다.

조용하던 아파트 놀이터에도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어 다니는 소리가 활력소가 되어 내 가슴에 힘이 솟는 것 같다. 조금 멀리 내려다 보니 하천에도 오늘 따라 물이 힘차게 흐르고 나무들도 초록빛을 더하고 있다.

며칠 전만 해도 태풍 고파스의 위력으로 너무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다. 빨리 일으켜 세우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날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어 안타깝게도 쓰러진 나무들을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비가 자주 오고 흐린 날이 많아 죽지 않고 생명이 이어 가고 있다. 나무들이 쓰러진 채로 그대로 시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도 목이 마르다 못해 타 들어

가을 빛과 어울려 더욱 반짝이고 있다. 그 어떤 꽃 보다 더 예쁘다.

가을이 마치 우리 집으로 찾아온 것 같다. 집안이 가을 빛으로 조금씩 물들어 가고 있다. 빨간 고추로 인해 하나 가득 가을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채반에 널어놓은 빨간 고추를 보고 있는 내 마음도 가을 빛으로 물들어 파란 하늘의 새하얀 문게구름처럼 가볍고 깨끗해 진 것 같다.

이 고추는 남편의 회사 뜰에 조그맣게 밭을 일구어 심어 놓은 곳에서 자라던 것이다. 여름 내내 직원들 점심때에 싱싱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주던 그 고추가 가을이 되어 빨갛게 익어서 조금 따가지고 온 것이다. 빨간 고추를 그냥 먹어버리기 아까워서 말려 보기로 했다. 농사가 잘 되었는지 고추가 아주 탐스럽게 잘 자라 예쁘게 익었다. 소중한 고추를 잘 말려 겨울에 가족들이 먹을 음식 만들 때 조금씩 넣을 생각이다. 시중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것과는 무엇이 달라도 다를 것이다. 땅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 마음에 와 닿는다. 조그만 땅에서도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구나 땅의 고마움을 느끼게 해 준 좋은 기억으로 오래오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

가는 것 같다.

지난 일요일 절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그 곳에 쓰러져 있던 나무들이 모두 세워져 있고 다시 쓰러지지 않게 버팀목으로 잘 잡아 주었다.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나무는 깨끗이 치워버렸다. 쓰러졌던 나무들은 버팀목에 의지해서 살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을 것이다. 다시 새로 심을 때까지 잘 버티어준 나무들의 힘이 놀랍다. 죽을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나무들의 의지력은 우리 사람들도 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여름은 어디엔가 살짝 숨었는지 아침 저녁은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 계절의 변화는 신기하게도 때를 놓치지 않는다. 아파트 베란다에도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 오고 있다. 태양빛은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라도 하려는 듯 따갑기만 하다.

난 이 가을 별에 적은 양이지만 빨간 고추를 말리기 위해 깨끗이 씻어 마른행주로 닦아 놓았다. 널어 말릴 채반을 찾느라 한참 동안 나 혼자 바빴다. 드디어 채반에 넓게 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놓고 들여다 보고 있다. 베란다는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좁아 계속 조금씩 옮겨 주어야 한다. 햇빛을 받아 고추는 더욱 빨간 색깔로 빛나고 있다. 고추의 빨간 색깔이 파란

래 남게 될 것이다.

올해의 가을은 더욱 특별하다. 여름 동안 계절이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가 마치 아열대 지방처럼 하루에 몇 차례씩 소나기가 내렸다. 늘 흐리고 습한 날씨에 사람들 기분마저 우울하게 만드는 날씨였다.

우리들은 그 동안 우리나라 날씨의 고마움을 모르고 지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여름 같은 날씨만 1년 내내 계속 된다면 사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까? 또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생각조차 하기 싫다.

오늘 같이 화창하고 서늘한 가을이 있어 여름도 견디기 어렵지 않다. 하늘은 높고 파랗고 공기도 맑고 깨끗하다. 지상의 낙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과장 되기는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가을의 시작이다. 가을은 바쁜 계절이기도 하다. 저마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계절이다. 나도 막연하지만 가을을 맞이하여 무엇인가를 해 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게 주어 진다면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박묘정

불교설화 <48>

검은소의 울음

-해남 미항사

『저것이 무엇일까?』
『배지 뭐야. 여보게 아무리 봐도 배처럼 생기지 않았나?』

『그렇기는 하지만 배 같으면 사람이 보일 터인데 사람이 안 보이지 않은가?』

『사람이야 보이거나 말거나 뽕새, 배야. 바다에 떠서 움직이는 게 배가 아니고 뭐겠나?』

신라 성덕왕 때 지금의 전라도 해남지역 사자포(숙청 사재 골, 땅골) 앞바다에 돌배 하나가 나타났다. 이상히 여긴 어부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배 가까이 다가

가니 배에서는 아름다운 천악(天樂) 범패소리가 울려 퍼졌다. 배는 사람을 피하여 동실동

실 바다 가운데로 떠나가더니 사람이 돌아서니 다시 육지로 떠오른

소문은 마침내 관가까지 들어가게 됐다. 관원들이 실지로 나와서 본 후 고을 춘주(지금의 군수나 면장격)에게 보고했다. 관원들의 보고를 들은 춘주는

말했다.
『그렇다면 그 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정을 탐지하러 온 배가 아니겠느냐? 배 위에 사람이 없다는 말은 그들의 위장술에

속은 것일 것이니라. 사람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을 뿐

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달아날 이치가 있겠느냐? 그 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황당한 배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수군을 풀어 서 나포토록 하여라.』

춘주의 명을 받은 관원들은 즉시 수군에게 첩보하여 정체를 모르

는 배를 잡아들이도록 했다. 무장한 수군 수십 명이 목선을 나눠 타고 돌배를 추격했다. 그러나 그

돌배는 바람 한 점 일지 않는 바다 위를 날쌔게 달아났다. 아무리 추격해도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달아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추격하던 수군들은 헛수고만 하고 돌아왔다.

『그것 참 알 수 없는 일일세.

어찌 그렇게도 빨리 달아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부리는 배는 아닐 성싶은데... 바닷가에 가끔 신선이 내려와서 배를 부린다더니 아마 신선이 내려와 노니는 걸까?』

『오라, 그래서 배 안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 나오나 보군.』

『그것 참 이상한 일일세. 그 배가 정녕 나무로 만든 배는 아니지. 바위를 파서 만든 돌배가 틀림없지?』

『돌배가 어떻게 물에 떠 다닐까?』

『그러기에 신선이 타고 노는 배거나 귀신의 조화라는 것이 아닌

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어 눈이 부시도록 휘황찬란했다. 그 중에는 금환(金環)과 흑석(黑石) 각 1매가 있었다.

스님은 이 범패들을 조심스럽게 하선시켰다. 불자들이 불상과 경을 언덕에 내려놓고 봉안할 땅을 의논할 때 흑석이 갑자기 벌어져

더러 그 속에서 검은소 한 마리가 나타나 삼시간에 커져 큰 소가 됐다. 이날 밤, 의조화상 꿈에 금인이 나타났다.

『나는 우전국이란 나라의 왕이오. 금강산에 만불을 모시려고 불경과 불상을 배에 싣고 왔더니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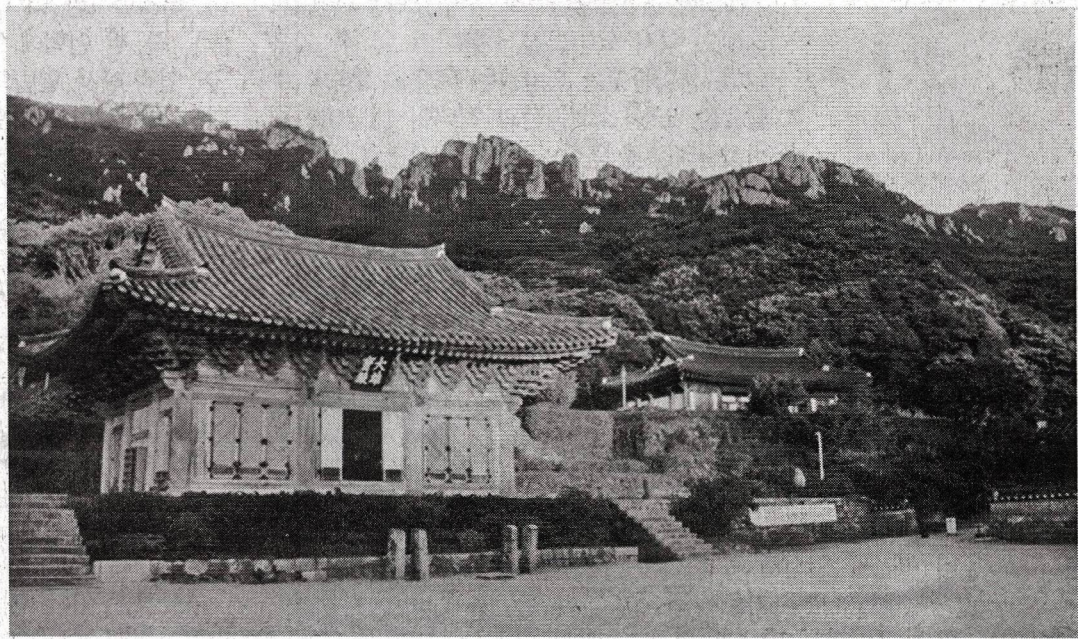
더니 다시 걸기 시작했다. 산협(山峽)에 이르러 검은소는 크게 울며 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어 버렸다. 이 자리에 절을 창건하고 불상과 불경을 모신 후 절 이름을 미항사라 명했다. 이는 그 소의 울음소리가 극히 아름다워「미」자를 취하고 금인의 황홀한 빛을 상징하여「황」자를 택해 미항사라 칭했다 한다. 또 처음 소가 누웠던 곳에도 절을 세우니 이 절 이름은 통교사라 한다. 통교사, 미항사를 비롯 달마산 내에는 도솔암, 문수암 등 12암자가 산중 각처에 있었으나 지금은 미항사만 남아 옛 전설을 전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 송지·현산·북평 등 3개 면에 위치하면서 영암에 속한 달마산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절경의 명산이다. 문헌에 의하면 1백 여 자가 넘는 수목들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으며 최상봉은 순백색의 흰 바위가 우뚝 솟아 사자가 웅크리며 포효하는 모습이고 용호가 어금니를 파는 것 같다고 한다. 또 멀리서 바라보면 흰눈이 쌓여 허공에 떠 있는 듯하고 구름 속의 신기루처럼 순간적으로 변모

하는 이 산은 금강산 절경에 비유되어 왔다. 바로 전설의 돌배가 이 산을 보고 돌아가던 길을 멈춘 것도 이 산이 불교적인 인연 국토임을 알게 한다.

옛날 불교 포교의 원력을 세운 인도의 왕은 경책과 불상을 조성하여 배에 싣어 바다에 띄워 보내면 인연있는 땅에 도착하여 저절로 포교가 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불상만 보고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꿈같은 일일 뿐 아니라 국고의 재산이 고갈된다면서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이어 온 불교를 선포하면 나라가 흥하고 백성이 이롭게 된다는 굳은 신심으로 금불상과 경전 및 철불을 조성하여 배에 띄워 보냈던 것이다.

- 심일화



▲ 해남 미항사

가. 이토록 괴이한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널리 퍼졌다. 의조 스님도 이 소문을 들었다. 스님은 곧 춘주, 우감과 장운 두 사마승, 그리고 불자 1백 명을 거느리고 바닷가에 가서 목욕재계하고 재를 올렸다. 드디어 배가 서서히 육지를 향해 오기 시작했다. 배가 바다 언덕에 닿자 스님을 필두로 일행은 배에 올랐다.

일행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배 안에는 사람이라곤 그림자 하나 볼 수 없는데 금물을 입힌 쇠사람이 노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옆에 놓인 금함을 열어 보니 그 안에는 《화엄경》,《법화경》, 비로자나불, 문수·보현보살 등 40성중, 53선지식, 16나한 탱화 등

곳에 크고 작은 사찰이 들어서 있어 봉안할 곳이 마땅치 않았소. 해서 그냥 돌아가는 길에 이곳 달마산 산세를 보니 그 형세가 금강산과 대동소이해 가히 경상(經像)을 모실 만하여 배를 멈추고 때를 기다린 것이오.

그래서 이곳이 부처님의 인연토가 되었으니 경전과 불상을 이 소에 싣고 가다가 소가 크게 울면서 누웠다 일어나는 곳에 절을 짓고 경상을 안치하면 국운과 불교가 흥왕할 것이오.』

금인은 이렇게 이르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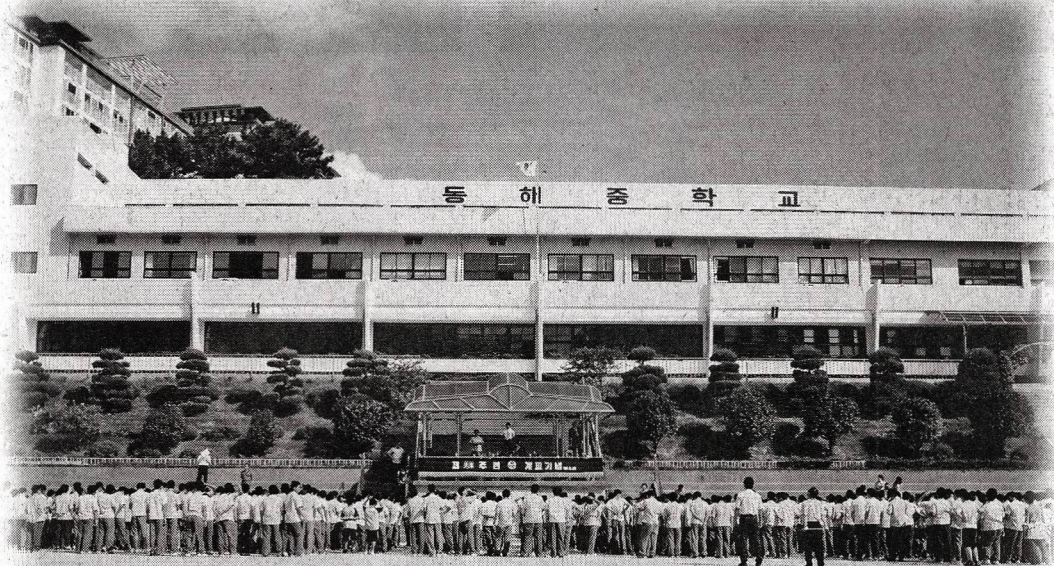
이튿날, 의조 화상은 금인의 지시대로 소에 불경과 불상을 싣고 길을 떠났다. 검은소는 경치 좋은 곳에 이르러 한 번 누웠다 일어나

하는 이 산은 금강산 절경에 비유되어 왔다. 바로 전설의 돌배가 이 산을 보고 돌아가던 길을 멈춘 것도 이 산이 불교적인 인연 국토임을 알게 한다.

옛날 불교 포교의 원력을 세운 인도의 왕은 경책과 불상을 조성하여 배에 싣어 바다에 띄워 보내면 인연있는 땅에 도착하여 저절로 포교가 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불상만 보고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꿈같은 일일 뿐 아니라 국고의 재산이 고갈된다면서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이어 온 불교를 선포하면 나라가 흥하고 백성이 이롭게 된다는 굳은 신심으로 금불상과 경전 및 철불을 조성하여 배에 띄워 보냈던 것이다.

- 심일화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 목 보리수

충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날마다 좋은날

같이 늙어 가는 즐거움

자 인 행 (운천사)

정말 오랜만에 배낭을 메고 등산화에 등산복 차림으로 산에 올랐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풀잎향기 가득 엮은 바람은 내 겨드랑이를 들어 올리고, 아직은 조금 따가운 초가를 햇살이 내 등을 밀어 발걸음이 가벼운 기분 좋은 산행을 상상하면서 산 입구에 들어섰다. 오늘 산행은 몇몇 보살님과 그리고 각자님 몇 분과 같이 동행했다. 그중에는 부모도 한 팀 있었는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손을 꼭 잡고 힘들어 하는 보살님을 각자님이 끝까지 잡은 손을 한번 놓지 않으며 두어 시간을 걸어 정상에 도착했다. 우리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도착했지만 정상에 서서 산 아래 풍경을 내려다보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보살님과 연신 이마위로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훔치면서 보살님을 쳐다보는 각자님의 따사로운 눈길은 산 정상 바위 위로 쏟아지는 초가를 햇살보다 더 밝고 눈부셨다. 서로가 고히

(古稀)를 바라보는 '나이까지' 살면서 저 부모라고 여겨 다름 한 번 없었을까마는 오늘 그분들의 모습은 평생 서로 큰소리 한번 내지 않고 살아온 부부 같이 보인다. 우리는 다녀갔다는 표시로 정상에서 모두 사진 한 장씩 찍었다. 물론 그 부부는 서로의 다정함을 한껏 과시하며 둘만의 포즈로, 너무 심하게 다정한 것 아니냐며 우리들이 짓궂게 혹은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젊어서 그러하니 그 모습이 매우 싱그럽고 푸르름까지 느껴지곤 했다. 그러나 이른 아침 집 근처 공원이

나 가까운 약수터에서 손을 잡고 가는 노부부들의 모습에서는 싱그러움이나 푸르름은 없지만 노을빛 같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한다. 삶의 깊이가 더해준 애정은 보는 이로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모로아는 "진실하게 맺어진 부부는 젊음의 상실이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이 늙어 가는 즐거움이 나이 먹는 괴로움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즐거움이라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은 불교에서도 설한 사교(四苦) 중의 하나로 우리들을 항상 힘겹게 하고 참고 이겨내야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모로아의 '같이 늙어 가는 즐거움'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같이 한 시간을 이야기 한 것 같다. 같이

살아온 시간이 행복했다면 당연히 같이 늙어가는 즐거움이 있었을 것이다. 같이 늙는 것조차 행복하게 서로가 느끼게 하는 부부,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인지 지금 내 나이에서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지만 혹시 있다면 오늘 나와 함께 산행한 그 부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비록 살가운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힘겨워 숨을 헐떡이는 보살님을 이끌고 끝까지 산 정상에 오르는 각자님과 가벼운 숨을 내쉬면서도 끝까지 따라가는 보살님을 보면서 묵묵히 앞서 걸어가는 우리정사님 등과 보살님을 꼭 잡은 각자님의 손이 비교되면서 조금은 부러움이 내 마음에 가라앉는다. 십수 년 후 산행 길에서 나도 손잡혀 산 정상까지 끌려 올라가는 행복함을 맛볼 수 있을까?

우리들 이야기

인연(因緣)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생의 역겹으로 만나
작은 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크고 작은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닿았기 때문
이다.
작은 인연이라고 여겨 쉽게 생각할
것인가
살다보면 다시 어느 순간에 또 만
나게 될지도 모를 일을

한치 앞을 어느 누가 안단 말인가
이별이라고 끝은 아닐 것이다
쉬이 헤어졌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느 순간에 만나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고 싶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떠나갈 지라도
소중한 인연이고 싶다.

-최해선

생활상식

▶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김장 김치를 겨우내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는 담그는 방법 못지 않게 저장 요령이 중요하다. 김치독은 너무 크지 않은 것으로 준비하여, 깨끗이 씻어 말려 뚜껑을 덮어 두었다가 사용하도록 한다. 너무 큰 항아리에 한꺼번에 넣어두면 꺼낼 때마다 김치와 공기가 접촉하게 되어 빨리 시게 되기 때문에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는 것이 좋고, 덜어서 먹기에도 좋다.

개장 김치독에 김치를 넣을 때는 반드시 비닐 봉지에 넣어, 김치가 7 부를 넘지 않도록 여유 있게 담은 뒤, 고무줄로 잘 묶어 놓아야 겨우내 신선한 김치를 먹을 수 있다. 이 때 달걀 껍질을 깨끗이 씻어 거즈에 싸서 김치독에 넣거나 갈나무 잎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은 다음 거즈에 싸서 넣어 두어도 좋다.

김치독은 땅에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아파트에서는 여의치 않다. 이럴 때는 상자를 준비하여 항아

리를 비닐 포대로 2~3겹을 두른 다음 상자에 넣고, 포대 주위의 공간에 말린 톱밥이나 왕겨를 채워 두면 땅에 묻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치는 항아리에 6 부 정도 차도록 담은 뒤에, 소금에 버무린 우거지를 충분히 덮고 꼭꼭 누른 다음 대나무 가지를 엮고 돌로 눌러 준다. 이렇게 압력을 높여 주면 김치가 시는 것을 지연시키고 김치가 항상 국물에 잠겨 있게 되어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

▶ 지질 때 단 것이 먹고 싶은 이유

피로를 느낄 때 단 것이 먹고 싶은 이유는 근육 운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이 소모되어 몸이 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단 것을 먹는 것은 피로 회복에 좋다. 그러나 한꺼번에 단 것을 많이 먹을 경우 설탕에 의해 위 점막이 탈수 작용을 일으켜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식욕을 잃을 수 있으므로 물을 함께 마시면서 단 것을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

예경(禮敬)하는 생활

불교상식②

진리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당해 서도 그 경계에 도달하지 않고 여실히 보고 행하게 되자면 불가불, 수행이 있어야 합니다. 진언염송이나 독경, 염불, 예경이 그것이지요. 이 중에서 부처님께 예경하는 생활은 불자로서 늘 지녀야 할 덕목인데, 이 예경은 참 나를 찾아서 올바른 생활을 해 나아갈 것을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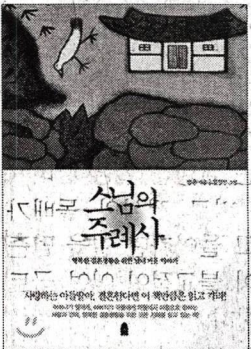
처님 앞에서 진심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의 생활이 예경으로 시작된다면 그 날 하루의 생활에 잘못된 거의 없을 것이고, 혹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곧 반성하고 고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한평생 이어진다면 참으로 바른 불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우채 기자

이달의 추천도서

스님의 주례사

법륜 지음/휴



이 책은 '스님의 주례사'라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안 인터넷을 통해 회자되며 결혼 전 반드시 읽어야 할 대표적 인 글로 화제가 된 법륜 스님의 남녀 마음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다.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주제를 통해 세상에 공경이란 티끌만큼도 없다는 인과(因果)의 법칙과, 수레바퀴가 소를 따르듯 모든 인연 맺음에는 과보가 따른다는 것, 그러하기에 스스로의 마음발을 잘 다스려 자신만의 생을 피워 내어,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과 연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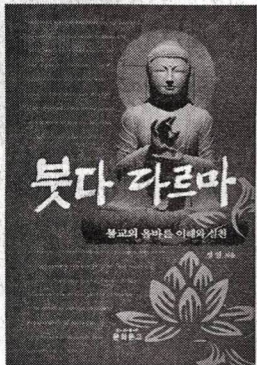
위한 방법론을 보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질서를 일깨우는 인연론이자 스스로의 삶에 물을 던지는 인생론이며, 다른 존재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관계론이자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발을 일깨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오늘' 또 '다시' 용감하게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에 대해 장밋빛 꿈을 꾸며 새로운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려고 하는 예비부부와, 이미 사랑이란 이름으로 결혼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부에게 전해 주는 축복 같은 인생의 지혜이다.

붓다 다르마

성열 스님 지음/문화문고

붓다는 자신의 시대가 안고 있는 온갖 모순과 불합리를 깊이 통찰하고 그것을 일깨우고 앞장섰던 역사내적 존재였다. 역사를 벗어난 불교는 신화학(神學化)된 불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은 고따마 붓다의 정통의 가르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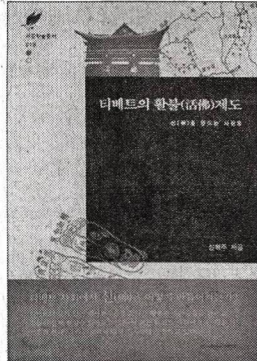


실천론으로 나누어 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성열 스님은 현재 강남포교원장이며 저서로는 『고따마 붓다』(2008 불교출판문화대창) 『부처님 말씀』 『자유인 입제』 『산스크리트문 금강경공부』 등이 있다.

티베트의 활불제도

심혁주 지음/서강 대학교 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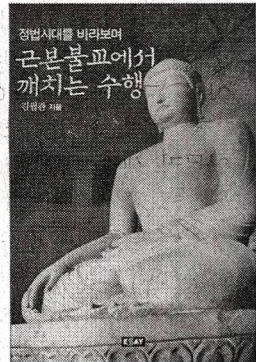


『티베트의 활불제도』는 티베트 활불의 실제와 활불제도의 종교적·정치적 역할과 그 한계를 탐구하고자 쓰였다.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왔던 저자 심혁주는 티베트의 살아 있는 역사현장들을 찾아가 활불과 라마승을 만나고 그들의 실제 현실을 담아내었다. 이를 통해 티베트 사회에서의 '활불'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

교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왔던 저자 심혁주는 티베트의 살아 있는 역사현장들을 찾아가 활불과 라마승을 만나고 그들의 실제 현실을 담아내었다. 이를 통해 티베트 사회에서의 '활불'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

근본 불교에서 깨치는 수행

김월관 지음/에세이



월관 법당은 부처님이 직접 가르친 핵심 교리와 수행법을 따라 모두 함께 출타동시수행(倅同時修行)으로 정진하여 '깨친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수행기법을 가르친다.

이 책을 통해 정법을 깨친 법사가 가르쳐주는 교리와 사상 그리고 이론 체계를 공부하고, 법사의 깨침 체험을 듣고 함께 따라 수행하면 쉽게 깨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책 후미에는 저자 자신의 살면서 느낀 고인의 경험과 거기에서 얻은 교훈들을 함께 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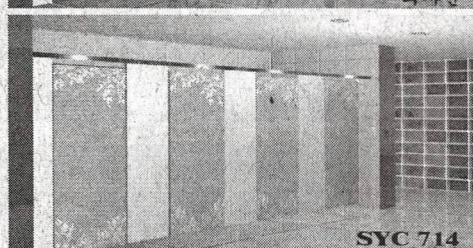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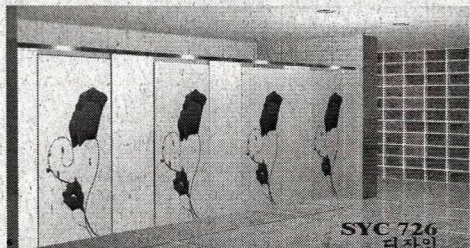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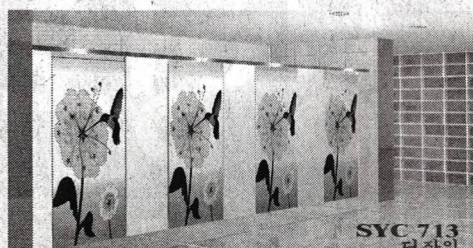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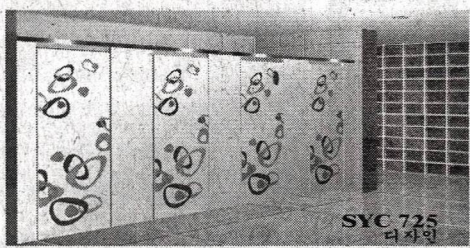
쾌적한 주거환경과 신개념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신양큐비스』

생산에서 판매,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

♣ 신양큐비스는 쾌적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입니다.

♣ 큐비클 생산/ 판매/ 시공 전문 기업

♣ 학교, 휴게소,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 대상 건물의 화장실 칸막이 전문업체.



견본 : 화장실 내부 칸막이

대표 김 한 옥

Mobile. 010-8953-2304

E-mail, okkimy@paran.com

http://www.sycubis.com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251-8

TEL. 031-403-7395 ~6

FAX. 031-403-7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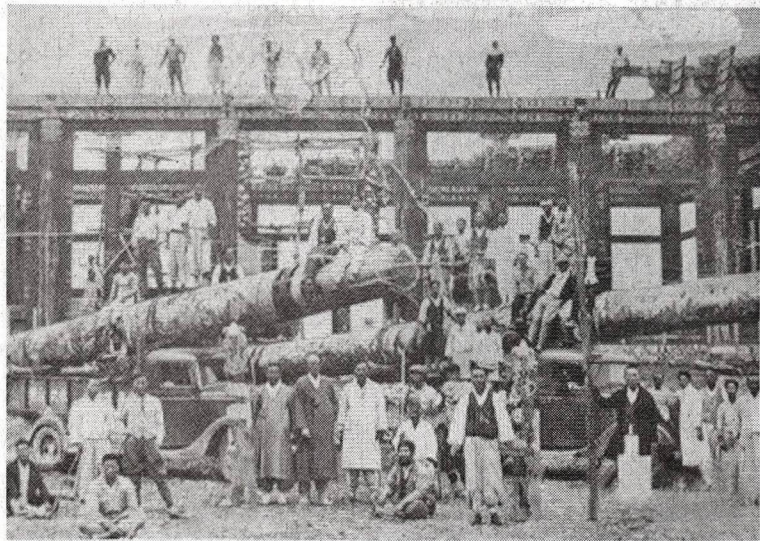
〈서울충지사 교도〉

신 양 큐 비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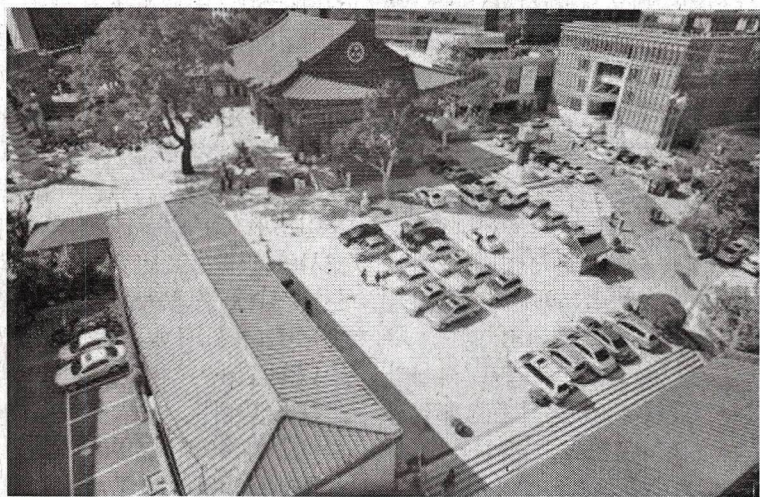
큐비클 생산 / 판매 / 시공

조계사 도심포교 100년 미래 전망

기념법회, 전시회 등 행사 다채



▲ 조계사 과거 사진



▲ 조계사 전경

조계사(주지대행 토진)가 창건 100주년을 맞아 도심포교의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법회와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

10월 2~10일에는 도심포교 100년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사진전과 사보(寺報)전을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했다.

5~7일 낮 12시 30분에는 시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8일 인연 맺기 신도원적봉안 불사, 10일에는 도심포교 100년 기념식과 함께 생활실천운동 '꽃이 되어요' 선포식을 개최했다.

생활실천 운동은 행복을 나누고(布施), 다정하게 말하며(愛語), 남을 돕고(利行),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자(同事)는 뜻으로 사십법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운동이다.

조계사는 또 24일까지 '이루어지는 조계사'를 슬로건으로 '2010년 부처님오신날과 조계사', '기도하는 조계사', '향기가 있는 조계사' 등 조계사와 관련 있는 사진 및 동영상 공모한다.

조계사는 조계종총무원 직할 사찰로 한국불교의 중심지다. 주변에는 조계종총무원,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비롯해 교계 언론사, 불교시민단체, 신행단체, 신도회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는 물론 불교성지순례 여행사, 불교용품까지도 집결해 있는 불교의 중심지다.

또 유아·어린이·청소년·청년을 비롯한 33개에 이르는 신행단체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0만 신도를 자랑하는 조계사는 외국인인이 가장 많이 찾는 사찰 중에 한 곳으로, 하루 외국인 관광객만 해도 400~500명이 들러 한국의 불교와 불교문화를 접하는 곳이다.

조계사는 대사화적으로도 한국근대불교 정화운동은 물론 2008년 촛불정국에는 조계사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보루가 되었고, 최근에는 4대강 지지 운동의 중심지로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조계사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외형으로 그 위엄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사 주변의 불교용품점과 물론이고 일주문 옆 신도회관은 어둡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다.

창건 100주년을 기점으로 한국 불교의 중심도량으로 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불교 세계화 가능성 높아”

조계종 대표단 방미, UN 반기문 총장 등 만나



▲ 조계종이 반기문 유엔 총장과 면담을 갖고 지구촌 평화를 위한 종교간 갈등 해소 방안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조계종 대표단이 9월24일 10박11일간의 미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총무원장 스님과 대표단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라니노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평화와 종교간 갈등해소, 최극민족 아동구조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반기문 유엔 총장과 면담에서 지구촌 평화를 위한 종교간 갈등 해소 방안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됐다. 면담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이 기념 촬영을 했다.

특히 유네스코에는 아이티 구호 기금 40만 달러를 전달하고,

향후 양측이 세계아동구조사업에 전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국제기구와의 유대 관계 형성은 종단과 한국 불교가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무원장 스님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구촌 갈등 가운데 가장 큰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오는 2013년 ‘종교 간 화합과 공동선 실현을 위한 세계종교지도자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계종 대표단은 미국 방문에서 현지 교민과 불자를 격려하고, 현지 사찰을 직접 참배하면

서 포교 상황도 살펴보고, 관음사에서 열린 LA 법회 및 만찬에 참석하고, 고려사와 선각사를 방문했다.

19일 플러싱 지역에 있는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뉴욕대법회는 교민 불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거행됐다. 연회장을 가득 메우고, 행사장 밖까지 임시 좌석을 마련할 정도로 많은 교민 불자가 참석했다.

20일엔 뉴욕 맨해튼 소호의 스카이라이트에서 열린 ‘한국사찰음식의 날’ 행사도 열렸다. NY1의 뉴스 앵커인 비비안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블룸버그 뉴스편집장, NYC-TV의 요리프로그램 진행자 켈리 최 등 뉴욕에 5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조계종 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한국불교의 세계화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사찰음식에 대한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은 사찰음식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유엔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이다.

사명대사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 봉행

“사명성사 선양 범국민운동 출범”



▲ 임진왜란 승병장 사명대사(1544-1610)의 열반 400주기 추모법회가 10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표충사에서 봉행됐다.

임진왜란 승병장 사명대사(1544-1610)의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 봉행위원회(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스님과 김두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 조해진 국회의원, 김두관 경남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제2차관, 임용수 밀양시장, 스님과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해 나라를 지키는 사명성사(四溟聖師)의 업적을 기렸다.

법회는 조계종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과 중앙종회 의원들로 구성된 ‘사명성사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 봉행위원회(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 밝혔다.

자승 스님은 봉행사에서 “사명성사 400주기를 맞이해 뒤늦게나마 임란전쟁의 기록에서 묻혀버린 의승군사(義僧軍史)를 연구 편찬하고 호법불교, 호국불교, 구국불교, 민족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또 “사명성사의 영정을 모시기나 관련이 있는 전국 35개 사찰과 학술단체,

사회단체와 연대해 사명성사의 구국사상을 선양하는 범국민운동을 출범시켜 민족 정신문화를 계승하는데 국민의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대제에는 법회에 앞서 승유복을 정복을 펼치던 조선시대에도 국가와 유생들이 직접 사명대사의 제사를 모셔온 전통에 따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주관한 유교식 차례제가 올려졌다. 1시간가량의 법회가 끝나고 나서 관음전에서 조계종 영산작법학교가 주관한 영산재를 비롯해 전국 불교 합창단이 주관한 합창제 등 다채로운 추모행사가 잇따랐다.

앞서 지난 9일 표충사 경내에서는 사명성사 백일장을 비롯해 저녁에는 유망 가수 등이 대거 초청된 자비음악회가 펼쳐졌다.

1544년 10월17일 밀양 무안면에서 출생한 사명대사는 법명이 유정(惟政)이고 당호가 사명당(四溟堂)이다. 임진왜란 당시 표충사에 승군 훈련장인 규정소를 설치했으며 평양성, 울산성 전투 등에 참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 기증 영가 천도재

생명나눔의 날 기념행사도



▲ 장기 및 시신기증자의 영가를 축원하는 천도제가 10월 3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봉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남양주 불암사에서 장기 및 시신기증자 영가를 축원하는 천도제를 10월 3일 봉행했다. 천

도재에는 기증자 유족 및 회원,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 기증 및 시신기증 영가 156위, 일반 영가 92위

에 대한 시련, 대령, 법문, 영가 천도 등이 진행됐다.

한편 불암사는 10월 9일 '2010 생명나눔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증자 및 후원자, 봉사자에 대한 감사장 전달, 유공자 포상, 감사의 편지 낭독 산사음악회, 노인복지기금마련 자비바자회 등이 진행됐다. 산사음악회에는 방승인 김병조, 박상민, 마야, 주병선, 왕크, 박정식, 서지오, 미스터광, 조성희, 세리, 정만호 씨 등 유명가수들이 출연했다.

또 두산장학회(이사장 일관 스님)는 불암사 대웅전에서 어려운 환경의 학인스님과 대학생,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불교총전은 통불교적인 입장에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여러 경전 중 그 핵심을 가려 뽑아 편찬되었다. 이 책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불교총전

국판/ 정가 35,000원/ 불교총지중 출판부

육자대명왕전(육마니반메흠)의 유래와 공덕을 철한 경전으로 본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다.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변형국판/ 정가 7,000원/ 불교총지중 출판부

총지종의 소의 경전. 반야 사상에 기초하여 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 궁극적 지혜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준다.

대승이취육바라밀경

국판 / 정가 15,000원/ 불교총지중 출판부

△입교개종 △교의대강 △육마니반메흠 △총지종 지표 △밀교란 무엇인가 △밀교의 역사 △육합상 해설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칼라 사진과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 총지종의 전반에 걸친 이해가 가능하다.

정통밀교불교총지중

변형국판/ 불교총지중 출판부

제4회 국제재가 불교 지도자대회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과 충남 공주 한국전통불교문화원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10여개국 500여명의 재가불자와 불교지도자, 재가불교 운동가, 학자 등이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 중 3편을 요약, 지면에 옮겼습니다. <편집자 주>

올바른 교육법-스리사 아소케(Srisa Asoke) 모델

봉 수리안 / 저널 편집인

수위다 상세하낫 / 보디 비잘라야 대학 교수



▲봉 수리안

스리사 아소케(Srisa Asoke) 모델은 한 불교 공동체가 창안한 것으로서, 성공적으로 사람을 새로이 태어나게 하는 교육법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철학과 삶의 가치와 인성의 고앙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가르칠 것인가에 관해 수립된 올바른 교육 방향과 그 적용법이기도 하다. 스리사 아소케 교육법의 최우선 요소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훈련, 바르게 살아가기 위

한 방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앎과 학문이다. 오늘날 스리사 아소케 학교는 태국 전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이다. 2010년 현재 200명이 넘는 학생 전원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1. 스리사 아소케(Srisa Asoke) 공동체

아소케는 불교 개혁운동을 이

끈 태국의 고명한 승려 이름이다. 아소케 공동체는 가르침과 수행, 불성과 깨달음을 얻기 위한 용맹정진을 삶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있는 공동체이다. 하루 하루의 삶은 영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행으로 짜여져 있다. '수행을 위한 삶을 살 것, 생산한 것만 쓸 것, 쓰는 것만 생산한 것'. 이 원칙은 영적 성찰과 동시에 공동체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다.

십사일반으로 주거 공간과 수행공간을 만들면서 "꽃파 사판 스리사-아소케" ('꽃파 사판'은 불자의 공간이라는 뜻, '아소케'는 고통 없음이라는 뜻 '스리사'는 본부 혹은 중심부)라는 이름을 붙였다.

2. 덕행이 최우선, 그 다음이 앎 - 스리사 아소케 삼마식카 학교의 우선순위

스리사 아소케 교육 시스템의 철학은 '계율 혹은 덕행이 최우선, 할일을 제대로 하는 능력, 그 다음 앎'이다. 즉, 사람에게 도덕성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다. | 교육 프로그램 : 스리사 아소케 프로그램은 3가지 요점 사항이 있다.

a. 40%는 올바른 삶을 위한 덕행 양성: 오계, 말초신경 자극이나 유혹에의 저항

b. 35%는 소명에 맞는 기술 습득: 학생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적 기술과 이론의 습득

c. 25%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제공하는 예술과 여타 다른 학문 공부.

II 학생의 일상: 영적 수행에 기반을 둔 일상을 살아가다.

* 4시: 기상

* 5시 까지: 세면과 청소

* 6시 까지: 운동, 국기에 대한 경례

* 9시 까지: 참선과 과업

* 10시 까지: 1시간 동안 佛法 강좌 청취

* 10시-12시: 식사. 음식의 가치를 생각하며 식사.

* 12시-1시: 공부

* 정확한 일정과 실질적 배움에 바탕을 두고 있다.

III 교육 과정: 두 부분으로 나뉜다.

a. 20%는 수학, 영어, 과학 등

b. 80%는 "예술&학문의 통합 응용".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뉘

팀 활동을 통한 교육을 받게 함. 특히 교육의 요목은 그린 농업, 쓰레기 줄이기, 그린 퇴비이다. 이는 국가를 살리는 것만이 아닌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함이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

프란츠 그뢴트 / 랍텐 센터 유럽



▲그뢴트 前 뮌헨대 교수

1. 서론

저는 독일에서 왔으며,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 체코 공화국의 「랍텐 센터 Rabten Centers」 대표입니다. 이 센터들은 <전통 티베트 불교 Tibetan Buddhist Tradition> 소속이며, 지난 세기 서구에 불교를 전한 개척자로서의 티베트 지도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분이신, 존경하는 게세 랍텐 린포체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불교 신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30년 이상 우바이upasaka 서원을 실천하고 있으며, 제 아내와 함께 존경하는 스승 곤사르 린포체의 정신적 지도하에 뮌헨에서 다르마 센터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는 소규모 전자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신세대가 봉착한 상황

세계 어느 곳이건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교육, 행동, 진로 상실, 잘못된 길에 빠지는 등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신세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돈'과 '종류의 비교, 종교, 사이버 종교, 뉴 에이지 혹은 뉴 웨이브' 시스템으로 황폐화 되어 있어 완전히 그들의 진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교는 젊은이들에게 가치를 해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그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을 불교의 네 가지 특성을 지적해준다면 말입니다.

3. 불교의 네 가지 특성

1) 불교는 신념이 아니라 논리에 근거한다.

붓다 자신이 이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모든 것을 황금처럼 분석합니다. 알고, 자르고, 녹이면서, 황금을 분석할 때면, 붓다의 가르침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그가 그렇게 가르쳤다 해서 오직 그에 대한 존경심을 이유로 단순히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증명될 수 있고, 이 점이 만족스러운 것이지요.

2) 불교의 자비심은 단 하나의 개체도 배제하지 않는 보편적 자비심이다.

이 자비심은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불교에는 '광대하고 논리적인 합리성'이 존재합니다. 자비심의 개발은 자비심을 개발하려는 충고에 의해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왜 우리가 자비심을 개발해야 하는 지에 관해 다양한 논리적 근거가 주어집니다. 불교적

배경과 올바른 실천으로 이들은 세계평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3) 불교는 심도 있는 분석과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에 의거한 심오한 철학적 관점을 제공한다.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모든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명확한 분석과 가장 설득력 있는 결과들은 불교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철학에서도 한 쪽의 연기 그리고 또 다른 쪽의 무자성(無自性) 혹은 제법 무아의 조화를 발견할 수 있겠는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연기에 근거한 제행무상(空性)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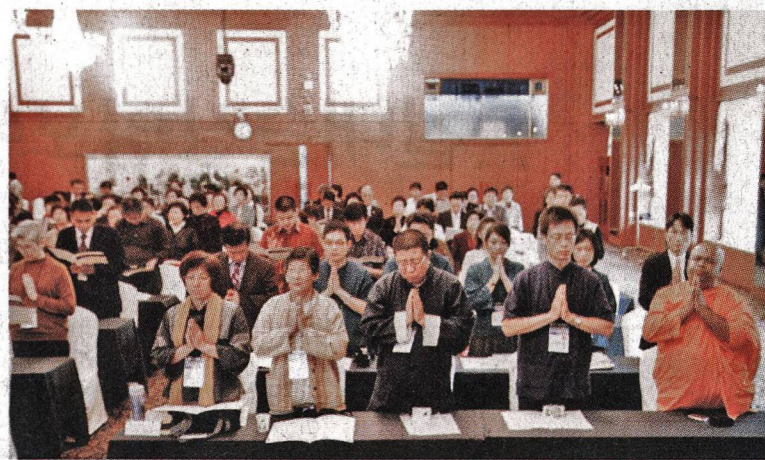
이러한 철학적 분석은 마음을 연구하는 데 명확하고 충족스러운 진술입니다. 불교는 철학 이상의 응용 학문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학술 토론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여 줌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체 중생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4) 불교에는 개인이 자신의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에 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지만 종종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를 인식했음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를 교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 실수들이 교정하기 용이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불교에 대한 우리의 중심 관점은 마음 그리고 마음의 기능과 잠재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명상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명상은 이미 우리가 '지나고' 있는 마음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 마음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타고난 자비, 인내, 집중 그리고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훈련이지요. 이 과정을 명상이라 합니다.

인터넷시대의 불교문화 전파

안호생 / 중국 인터넷포털 '불교재선' 총간사



▲가운데 안경 쓴 사람이 필자 안호생

1. 인터넷 시대와 인터넷 불교에 관한 서론

의심할 바 없이, 오늘날의 세계는 이미 인터넷의 시대로 들어섰다.

현재는 역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시대로서 인류는 전에 없는 기회와 전에 없는 도전에 부딪치고 있다. 글로벌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불교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불교의 힘을 기여하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많은 중생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숙고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일 뿐 아니라 우리가 보리지혜를 성취하는 가장 수승한 인연이기도 하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난다. 인터넷시대의 도래는 인터넷 불교를 생겨나도록 하였고 불교를

전파하는데 있어서 가장 수승한 기회인연과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사찰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예불, 불법포럼, 인터넷 교실 등등의 형식으로 "털끝 하나에 우주와 부처님 세계를 구현해내고, 먼지티끌 속에서 대법륜을 굴린다(於一毫端現寶王刹, 住微塵裏轉大法輪)"는 경지가 실제로 현실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2. 인터넷시대와 인터넷불교에 대한 고찰

논리적으로, 현대사회에 인터넷이 가져온 영향과 의의 및 상관적인 문제는 불교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교의 종교적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독특성을 드러내게 된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유구한 역사의 불교와 가장 새로운 과학기술인 현대 인터넷의 관계는 불교인터넷이 반영해내는 불교의 구체적인 오늘의 현대성 문

제를 깊이 살펴보고 할 뿐만 아니라 깊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실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깊게 들어가 보면, 인터넷은 비록 정보교류 방식의 혁명이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영향력의 크기는 여기에서 다 드러낼 수 없으며, 최소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3. 인터넷불교의 구체적 건의 몇 가지

1) 불법을 널리 펼쳐서 대중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뜻을 세운 불교계의 엘리트들도 편리한 수단을 통하여 널리 좋은 인연을 펼치고 전법포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 인터넷에 접속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오늘날의 사회를 이해하고 오늘날을 사는 대중을 이해하며, 오늘날의 불교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크기와 형식을 막론하고 인터넷에서 근거지를 구축해야만 인터넷 사회와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4) 인터넷의 상호적인 활동 전개 불교문화의 인터넷 전파과정에서 상호작용이라는 기능의 설계와 시행을 특별히 강화하여야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지혜를 개지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근본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진리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태장계 만다라 *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비야인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만다라는 중앙의 중대말염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전,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금강계 만다라 *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계,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에게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만다라는 중앙의 성신의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전, 연경현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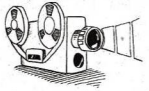


* 구성표

- ◆ 사이즈 및 가격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 가격 동일)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포함)

* 문의 : 통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 불교총지총

불교총지총



영화에서 불교보기 ⑫ 두 스님을 통해 경험하는 구도여행

한국 최고의 불교영화, <만다라>



▲ 영화 만다라(1981)의 한 장면

영화<만다라>를 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날은 어둑어둑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후 서너 시 밖에 안됐지만 두 겹고 낮게 내려앉은 회색 구름 때문에 저녁이 다 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내 마음도 하늘을 덮고 있는 짙고 무거운 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절망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지요.

그런데 이런 감정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영화 <만다라>의 주인공에게 완전히 감정이입이 돼 너무나 강렬한 절망감과 슬픔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날의 그 강렬했던 느낌 때문에 20여년이 지난 영화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다라>는 참 어두운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지탱하는 또 다른 주인공인 지산스님(전무송 분)의 처지가 신산하고 또 그가 느끼는 감정이 어두워서, 그리고 마지막 자살을 통해 마감하는 그의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보는 내내 안타깝고 괴로운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범운스님(안성기 분)이라는 여법하게 수행을 잘하는 수자가 지산이라는 파계승을 통해 삶의 이면을 경험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 게 기본 골격입니다.

대승불교의 두 축인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에서 지금까지 범운은 '상구보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산을 통해 '하화중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방에서 깨달음을 찾던 승려가 세속의 나라에 떨어져서 추악한 현실에서 오히려 깨달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범운 수자가 안거를 끝내고 만행 길에 올랐다가 버스에서

의 만남에서 범운은 묘한 끌림을 느낍니다.

졸달배를 피우고, 사찰이고 법당이 고가리지 않고 술을 퍼마시는 등 일찌감치 계를 같은 건 지킬 생각도 안하는 지산이지만 그에게서 범운은 순수한 절망을 봅니다. 적당하게 계를 지키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다른 승려에게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절망입니다. 지산의 순수한 고통이 범운에게 묘한 매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범운은 모두들 "뽕초"라고 부르는 지산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의 내력을 듣게 됩니다.

지산은 원래 올곧은 수행자였습니다. 고시공부를 하다가 불교에 심취해서 홀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산으로 들어온 지산은 정말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결재가 끝나고 모두들 만행을 떠났을 때도 그는 수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층의식에 자리 잡은 욕망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더 강렬해졌고, 결국 그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욕망에게 백기를 들게 됩니다.

지산이 머물던 사찰에 요양하러 왔던 여대생과 사이에 염문이 생겨나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는 승계를 박탈당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와의 하룻밤에서 설총이라는 아들까지 얻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하심하고 수행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고승이 되었는데 지산은 이런 큰 스님의 그릇이 못됐던 것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처럼 고승대덕의 씨도 따로 있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하면서 지산은 자신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여자를 탐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이렇게 막 살면서도 지산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심한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나약함을 혐오했습니다. 그의 이상은 언제나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삶일수록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적당하게 속물적인 자신에게 별 불만이 없다면 그냥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순수한 지산은 자신의 타락을 조금도 용서하지 못했고, 허무와 고독을 십자가처럼 지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지산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인간의 한계로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런 극한의 허무와 고통에서 결코 헤어날 능력이 못 된다고 본 것이지요. 깨달음을 얻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선택받은



소수에 해당하고 아는 헛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끝낼 방법은 자살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느 날 오는 날 들뜬에서 현생과 작별했습니다.

지산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산의 고통은 끝났을까, 하는 의문요. 그러나 불교의 윤회관에 입각해서 보면 현생은 미래세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다음 생으로 미뤄진 것이니 그는 다시 그 고통과 비극이라는 숙제를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산은 그렇게 쉽게 죽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자신이 천형으로 부여받은 고통과 허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야 했습니다.

한편 지산의 시신을 데려와 다비식을 치러준 범운은 어머니를 만날 결심을 합니다. 범운의 어머니는 어린 범운을 버리고 재가를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범운의 가슴 한 쪽에는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그리움이 파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산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범운은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엄마에 대한 증오와 그리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의 존재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고통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범운은 왜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지산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는 것은 다 고통이고, 그 누구의 삶도 예외가 없다는 보편적 진리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찰은 오랜 시간 생체기로 남아있던 엄마에 대한 감정까지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홀로 고고한 학처럼 선방을 지킬 때는 극복하지 못했던 감정을 오히려 절제한 인생사 속에서 극복해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상구보리' 보다는 '하화중생'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범운스님이 길고 먼 만행 길에 오르면서 끝납니다.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깨달음은 요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슬프고 무거웠던 영화는 막을 내렸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75번째 작품인 <만다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그간 많은 영화를 찍었지만 임 감독은 <만다라>를 통해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됐으며, 이 작품을 시작으로 영화의 예술성에 눈 뜨기 시작했으니 이 영화는 임 감독에게는 특별한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임 권택 감독 특별전을 개최할 때 <만다라>가 오프닝을 장식했던 것입니다.

또한 <만다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영화입니다. 실제 승려였던 작가 김성동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작가의 특별한 경험이 녹아있어 그 어떤 불교영화 보다는 진정성과 함께 구도의 열정을 엿볼 수 있기에 최고의 불교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다라>는 외국에서도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

만다라 세상

“종교계 공익사업 투명성 높여야”

종교계에 대한 국고지원을 두고 종교간 공방이 이어져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7월 대표적인 기독교단체들이 “종교계는 국민혈세로 종단 운영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불교계 예산지원 일부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국가재정을 종교사업에 갖다 쓰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측이 선수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 예로 정부가 매년 종교사립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6천3백억원 중 개신교와 천주교 등 기독교 계열이 86%나 차지하는 데 반해, 불교는 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종교가 국가를 대신해 교육이나 복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온 것은 인정받아야 하고 또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다종교 사회에서 국

이 동의할 만한 내용으로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투명하게 활용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 국고지원 대상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나 사후 평가 등은 해당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믿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사업의 현장에서 종교차별을 하는 경우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종교사립대학에서 교수 채용 시 자격요건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전체 운영비의 60~70%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는 종교계 종교대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특정종교인들만 임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사실 오래된 차별행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종교단체가 운영주체이므로 구성원들이 그 종교인들로만 이루어져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수

“국가재정 종교사업 사용 기독교 월등히 많아”

가가 직·간접으로 특정종교에 혜택을 주거나 차별을 두는 듯한 정책을 쓴다면 문제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일부 종교단체들이 공익사업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종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국민이 관심과 우려를 갖는 이유다.

우선 문화 관련 사업이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임무다. 문화재를 국가 예산으로 관리하는 배경이다. 템플스테이 등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형문화재의 관광상품 개발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어느 것이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며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가동되어야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불교로서는 불교문화유산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타종교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 보존차원이 아닌 불교지원으로 비쳐지기 쉽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종교가 로비에 의해 예산을 받아낼 수 있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하지만 모든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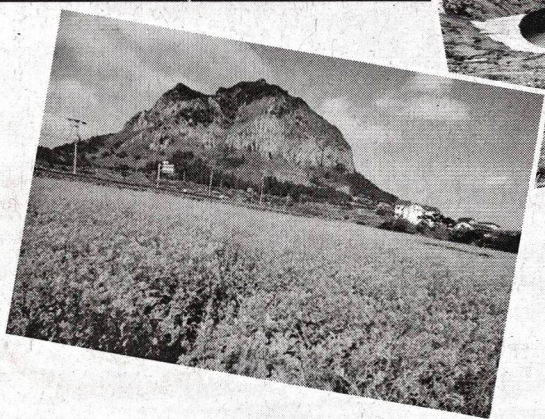
학을 가르치고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데 왜 특정종교인이여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가 특정종교의 선·포교 활동을 재정지원 하는 셈이 되어 정교(政敎)분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마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의 의식 부재 및 지도감독 소홀의 결과다. 공공영역에서 특정종교인민의 채용이 '불가피'한지 '불가'한지 국민적 논의를 통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이 일상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한 '공정한 사회'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익법인이거나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때 종교차별 여부를 세심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공공의 가치가 신앙적 가치보다 우선할 때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내 종교만 행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자비라 할 수 없다. 종교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나는 법대로, 나는 멋대로'식의 행위는 종교이기주의로 사회갈등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사회통합의 결집력이 아니라 디딤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박광서(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바다와 하늘이 마주하는 곳, 펜션 바하마(BAHAMA)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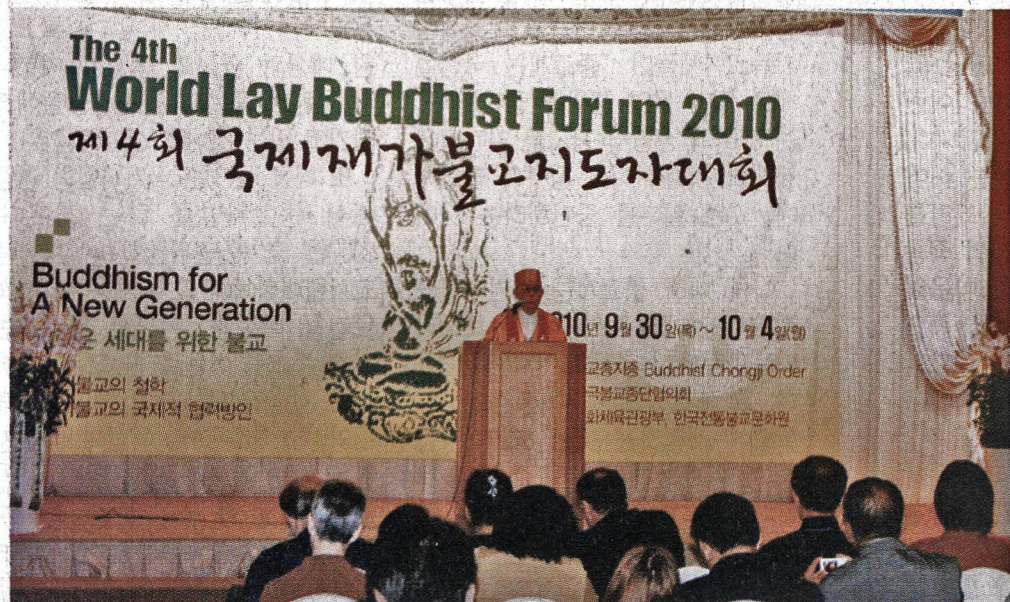
항적 해수욕장 근처 해안도로에 자리잡은 펜션 바하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구조 : 쓰리룸(거실 포함) 3실 / 원룸 4실
★ 6월 오픈

주소 : 제주도 조천읍 조천리 920번지
전화 : 010-9032-7114 / 070-8900-8977
대표 : 조 경 숙 (총지사 교도)

제4차 국제제가불교지도자대회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



효강 종령 예하 기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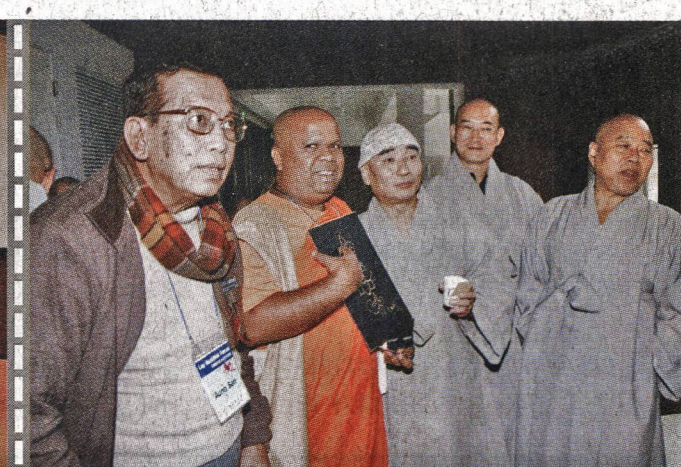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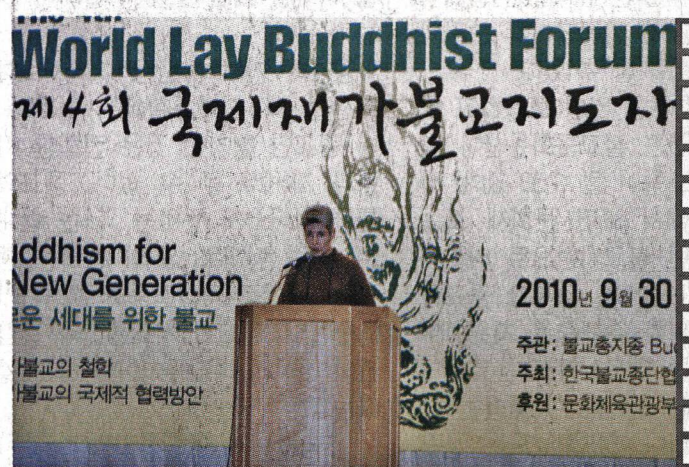
공주 마곡사에서



독일 그스윈트 교수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개회식



종단발전과 교화활성화를 위한 제2차 승단 종책토론회

종단발전과 교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승단 종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저 하오니 스승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사 의식』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스승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각 분야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오니 이번 종책토론회에 많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1. 일 시 : 총기39년(2010년) 11월 23일(화) 12시

2. 장 소 : 부산 정각사

3. 주 제 :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사 의식

4. 질의응답 및 토론

5. 참석 대상자 : 승단의 모든 스승님 (자유 참석)

6. 발표자 : 법경 정사(총지종 밀교연구소 연구원)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